

# SK이노베이션의 선택과 집중

## 전기차 배터리에 집중 위해 ESS 개발하고도 출시 안 해 (에너지저장장치)



SK이노베이션 서산 배터리 공장.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이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개발하고도 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전기차용 전지 생산 집중 때문이다.

ESS는 전력을 비축할 수 있는 장치다. 거대한 하나의 건전지라고 볼 수 있다. 전력 공급량이 과다할 때 ESS에 전력을 저장했다가 전력 공급이 많이 필요한 때에 전력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17년 하반기 SK이노베이션은 이미 ESS 개발을 완료했다. 당시 일부 ESS 사업자들 사이에는 SK이노베이션이 개발한 ESS 성능이 알려지기도 했다. 총방전 수명 6000회에 70% 수명을 보증하는 수준이다. 전지를

충전하고 방전하는 과정을 6000회 반복한 뒤에 전지의 저장 가능 에너지량이 최초 저장 가능한 에너지량의 70% 수준이 된다는 뜻이다. 이는 삼성SDI와 LG화학에서 현재 생산하는 ESS와 비슷한 수준이다.

ESS는 하루 종일 충전과 방전을 거듭한다. 설치되는 공간이 커도 큰 문제가 없어 에너지밀도보다 총방전 수명이 더 중

요하다. 반면 한정된 공간을 사용하는 전기차용 전지는 높은 에너지밀도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이 때문에 이차전지 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전기차용 전지 셀과 ESS용 전지 셀 내부 설계를 다르게 한다.

용도에 따른 전지의 내부 소재 설계만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생산라인으로 ESS용 전지를 만들거나 전기차용 전지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LG화학은 중국

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업체에서 제외되자 중국 난징에 위치한 이차전지 생산라인에서 ESS용 전지를 주로 생산하기 시작했다. 중국 난징에서 ESS용 전지를 생산해 국내외 ESS업체에 공급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LG화학은 이를 통해 난징공장의 가동률 회복과 전지사업부문 수익성 강화를 동시에 꾀할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ESS용 전지는 전기차용 전지에 비해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원인은 공급부족이다. 국내 ESS 시장은 2017년부터 공급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국내의 ESS 시장이 커지며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 때문에 ESS용 전지의 수익성은 전기차 전지 수익성보다 높다.

수익성 면에서 유리한 사업임에도 SK이노베이션이 ESS를 양산하지 않는 이

유는 안정적이지 않은 수익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자동차용 전지의 경우 고객사인 자동차 업체에 한 건을 계약하면 몇년 동안 꾸준한 제품 공급을 담당하게 된다. 1건당 수익성이 ESS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다. 반면 ESS는 수요량이 일정하지 않다.

현재 ESS 시장이 공급부족에 처한 이유도 수요의 불안정성에 원인이 있다. LG화학과 삼성SDI 역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동차용 전지 시장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ESS용 전지를 공급할 여유가 많지 않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SK이노베이션은 현재 전기차용 전지 생산에 집중하고 있어 생산라인에 여유가 없다"며 "ESS사업 참여는 향후 생산라인에 여유가 생길 경우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찬길 기자 cgr@metroseoul.co.kr



성수기 맞은 LG 휘센... 판매량 40% '경종'

14일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LG전자 군포 물류센터에서 에어컨 설치기사들이 LG 휘센 썬큐 에어컨을 배송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LG 휘센 에어컨의 6월 첫 주 판매량은 전주와 비교해 40% 이상 증가했다. LG전자는 올해 한층 더 강화된 인공지능으로 공간·환경·사용패턴을 스스로 학습하는 LG 휘센 썬큐 에어컨을 선보이며 국내 프리미엄 에어컨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LG전자

## SK(주) C&C '클라우드 제트 엣지' 인기몰이

SK(주) C&C는 14일 자사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 상품인 '클라우드 제트 엣지'가 ㈜에이피솔루션즈, ㈜서연이화인디아, ㈜비스텔, 대양그룹 등에 잇따라 공급되며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제트 엣지는 제조·금융·의료·건축·교육 등 전문적인 분야에서 보안 등의 이유로 독립적인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원하는 기업들을 위해 개발된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패키지 상품이다.

자동차·항공기 설계 전문기업인 ㈜에

이피솔루션즈는 클라우드 제트 엣지를 통해 회사의 주요 설계도를 완벽하게 보호하면서도, 외부 어디서든 사내 클라우드 시스템에 접속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인 ㈜서연이화인디아와 스마트 제조솔루션 전문기업인 ㈜비스텔 등은 클라우드 제트 엣지를 도입해 서버·워크스테이션·노트북은 물론 네트워크 자원까지 통합 운영함으로써 IT 설비 신규 도입 비용을 50% 이상 절감하고 관련 라이선스 도입 비용도 40% 이상 줄였다.

/구세윤 기자 yuni2514@

## 르노 클리오, 출시 첫달에 소형차시장 1위 등극

'해치백 무덤'으로 불리는 국내 자동차 시장에 르노 클리오가 성공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지난달 출시한 르노 클리오가 고객인도 영업일 10일 만에 756대가 판매됐다고 14일 밝혔다. 르노 클리오의 5월 판매량 756대는 현대차 엑센트의 기록(3월 574대)을 넘어섰으며 한국GM의 볼트EV(1014대)를 무서운 속도로

추격하고 있다. 정부지원 공모지원과 같은 판매 특수성이 있는 전지를 제외하면, 클리오가 출시 첫 달 소형차 판매 1위에 등극하면서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특히 르노 클리오의 판매 가격은 프랑스 현지에서 판매하는 '인텐스' 트림의 동일한 선택사항과 비교할 때 1000만원가량 낮게 책정된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냈다.

/양성준 기자 ysw@

## 美 IT 매체 "LG OLED TV 번인 발생 확인"

알팅스, 번인 테스트 중 실제 확인  
지속 노출·픽셀 밝기 등 잔상 원인

OLED TV를 통해 세계 TV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던 LG전자에 '악재'가 터졌다. 그동안 OLED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던 '번인(burn-in)' 현상이 실험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최근 미국의 IT 디바이스 리뷰 매체인 알팅스는 OLED TV 번인 테스트 중 실제 번인을 확인했다고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으로 14일 밝혀졌다. 번인이라 TV 시청시 긴 시간동안 같은 화면을 켜두거나 방송사 로고같이 동일 이미지가 한 위치에서 오랫동안 반복 노출될 때 생기는 영구잔상을 말한다. 해당 부분의 색상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거나 화면에 얼룩이 생긴 것처럼 보인다.

알팅스는 올 1월말부터 LG전자의 OLED TV 6대를 대상으로 하루 20시간 동안 일반 사용자 시청 화면을 켜고 번인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번인 현상이 나타났음을 확인했다.

알팅스는 밝기를 최대화 상태에서 CNN 방송을 지속적으로 시청할 경우 CNN 방송의 속도 배너 형태에 검은 자국이 발생한다고 보도했다. CNN은 자주 속보를 내며 이 과정에서 로고노출이 빈번하기 때문에 번인을 일으킨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번인은 최대 휘도에서만 발생하지 않았



알팅스가 실시한 LG OLED TV 번인실험1.

/알팅스 홈페이지

다. 동시에 테스트하고 있는 일반 시청환경의 CNN 방송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속도 배너 번인이 나타났다.

알팅스는 테스트 Q&A 코너를 통해 "OLED TV가 출시된 이래로 이런 문제는 나아졌지만, 테스트와 유사한 콘텐츠 시청으로 TV를 볼 때 번인이 발생할 것이 매우 걱정스러운 사람은 다른 기술을 채택한 패널을 선택하라"고 권했다.

번인 문제는 외국 테스트뿐 아니라 국내 실사용 사례에서도 발생했다. 지난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대한항공 마일리 클럽 라운지에서는 출발 게이트와 수속 현황 안내 모니터용으로 사용된 LG전자의 2018년형 OLED TV에서 TV를 꺼도 하얀색 테두리가 잔상으로 남는 번인 현상이 발견됐다.

LG전자가 2015년 남산 N서울타워에 설치한 OLED터널에서도 번인이 확인됐다. 터널의 한 패널에는 꽃 그림의 번인 현상이, 다른 한 쪽에는 푸른색의 네모가 2점씩 찍히는 현상이었다.

번인 현상은 유기물 소재를 채택한 OLED 화면 패널에서 흔히 발생하며 OLED TV의 치명적 결함으로 꼽힌다. 자발광 디스플레이인 OLED TV는 개별 픽셀이 빛을 내는데 강한 빛을 오랜 시간 낸 픽셀의 경우 밝기가 떨어지면서 잔상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LG전자는 올레드TV 제품사 용설명서에 '장시간 정지 영상을 시청하는 경우 화면 잔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고정된 화면을 너무 오래 시청하는 것을 피하라'고 표기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 삼성전자, AI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넥스트 Q 펀드' 발족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관련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전용 펀드를 발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삼성전자의 혁신조직 삼성넥스트는 첨단 AI 기술 보유 신생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넥스트 Q 펀드'를 출범시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신성장동력'으로 지목한 AI 분야에서 우수 인력과 기술을 빠르게 확보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최근 최고혁신책임자(CIO)로 임명된 삼성넥스트 데이비드는 은 사장이 이를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넥스트 Q 펀드는 일종의 벤처펀드로 AI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투자를 포함해 벤처기업과 연구개발(R&D) 인력 간 연결 지원도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시뮬레이션 러닝을 비롯해 ▲직관물리학 ▲로봇제어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메타 러닝 ▲자율주행 등 주로 새로운 개념의 AI 기술 연구와 함께 관련 신생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펀드 운용에는 딥러닝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인 벡터연구소의 데이비드 듀브노드 교수와 시각인식 능력을 갖춘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프린스턴대 올라 투사

코브스키 교수 등이 자문 등 역할을 통해 관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투자펀드 설립이 최근 이 부회장의 미래 먹거리 발굴 행보의 일환이란 해석도 내놓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영국·캐나다·러시아 등 5개국에 글로벌 AI 연구센터를 설립했으며 곧 프랑스에도 AI 센터를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에는 AI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자로 알려진 미국 프린스턴대 세바스찬 승 교수와 펜실베이니아대 대니얼 리 교수를 동시에 부사장급으로 영입했다.

/안병도 기자